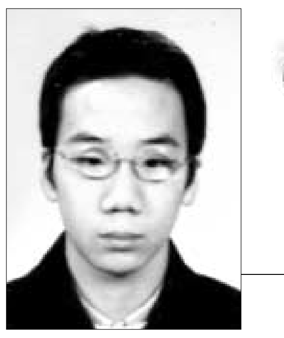
불교이래서 좋다



최재윤

동양대 인터넷산업공학부 2학년

"있는 만큼 행복한 삶"

어렸을 때부터 난 불교가 좋았다. 절에서 먹는 비빔밥도 맛있고 법당에 앉아 있으면 참으로 편했다. 그저 막연히 좋기만 했던 불교가 얼마 전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었다. 용타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기대를 낮추고 '있는 만큼 행복하라'."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은 순간부터 내 삶에 너무도 큰 변화가 생겼다

어렸을 적 나는 심장병을 앓았다. 살아날 확률도 거의 없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도 난 살아남았다. 남들은 대단하다고 했지만 난 늘 마음이 무거웠다. 난 살아났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살아난 기쁨보단 죄책감이 앞섰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잘못임을 알았다. 그런 생각들로 인해 난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살았다. 하지만 더 이상 어깨가 무겁진 않다. 그만큼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보시 아닌 보시를 평생동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친구가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넌 항상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아니야. 세상 슬픔 다 가진 눈을 하면서 그런 가식 웃음 짓지 마." 늘 당당해 보이기 위해 웃음을 지었던 내가 들은 말이다. 하지만 그 친구도 이젠 내가 많이 변했다고 말한다. 즐겁게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말한다. 나 또한 그렇다. 웃으려고 웃는 게 아닌 그냥 미소를 머금게 되는 나 자신이 너무도 좋다. 어린 시절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던 스님들의 따뜻한 표정을 조금은 닮아 가는 것이 아닐까?

무언가를 믿음으로써 정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반성하며 노력함으로써 정진하게 하는 불교가 너무도 좋다.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것이 불교가 아닐까? 이렇게 좋은 불교를 어찌 싫어할 수 있겠는가? 이 글을 쓰며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겨본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줄 알고 내가 가진 만큼 행복하자.'

◇"Coming soon. 기대하시라!" 3월 29일 명성여고 법당인 수심당에 모인 '사라나 청소년기자단'.

"안녕하세요. 저희 명성여중에서는 부처님 생일인 초파일을 맞아 이쁜~! 아기 부처님 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종립학교에 다니는 불자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명성여중 청소년 기자 청풍이었습니다.^^"

"청소년 기자가 짱 이야!"

정보갈증 해소… "학생들의 눈과 귀 역할"
행사 뒤 숨은 이야기 적극 발굴 공유 예정
진학, 학습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인터넷을 통해 사라나 청소년기자단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sarana.or.kr)에 접속한 동대부고 2학년 전인호 군. 전 군은 지금 기자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초파일 봉축행사 예고기사를 복사해서 메모장에 옮겨 붙이는 중이다. 전 군의 얼굴에는 즐거운 기색이 가득하다. 예전 같으면 선생님이나 입소문을 통해서나 들었던 다른 종립학교 소식을, 이제는 클릭 한번으로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라나 청소년기자단이 올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흔히 보게 될 모습이다. 동대부고, 광동고등학교 소속 200여 학생들은 3월 29일 서울 명성여고 법당에서 사라나 청소년 기자단을 발족시켰다.

전국 22개 종립학교 소속 청소년 기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기사거리를 찾고 있다. 예전 같으면 추억 속의 사진으로 남을 사건들이 속속 인터넷으로 올라온다.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은 종립학교 학생들의 정보갈증을 시원스럽게 해소해줌으로써 바람직한 대안언론의 역할까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라나 청소년기자단이 따끈따끈한 기사로 만들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청소년 기자단은 졸업식, 입학식, 운동회, 소풍 등 종립학교 행사를 취재한다. 특히 청소년 기자단은 이들 행사 뒤에 숨은 이야기도 적극 발굴해 전국의 종립학교 학생들과 공유한다.

중요한 청소년 문제를 다룰 집중 기획 취재 활동도 벌일 계획. 진학·우정·이성 문제 등 청소년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기획 취재를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한다는 목표다.

종립학교 학생들의 학습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된다. 사라나 청소년기자단은 불교 관련 정보, 청소년 법회나 수련회 정보 제공은 물론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핸드폰 동영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청소년 기자단장 박홍렬 군(동대부고 2년)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인도 불교유적 동영상으로

동대부고 김재욱 교사 답사자료 모아
교육용으로 구성 종립학교 배포 예정

◇아쇼카 왕이 기원전 3세기 경 조성한 산치대탑.

청소년들에게 인도 불교 유적지를 소개하는 동영상 자료가 나왔다.

동대부속고등학교 김재욱(수학) 교사는 3월 29일 명성여고에서 열린 청소년문화연구소 3월 월례 세미나를 통해 대표적인 인도 불교 유적의 모습을 동영상 자료로 제작한 '인도 불교 세계 문화 유산 답사보고'를 발표했다. 이 동영상 자료는 김 교사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아잔타석굴, 산치대탑 등 인도 현지를 답사하며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자료를 모아 만든 것이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산하 청소년문화연구소는 앞으로 이 동영상을 중·고등학교 교육용 교재로 재구성해 전국의 종립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이날 명성여고에서 서울지역 파라미타 학생자치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발족한 학생자치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 소식지를 발간하고 합동법회와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자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명작 비디오 파일

천녀유혼

1987년 개봉한 정소동 감독의 천녀유혼은 당시 전세계 18개 영화제에서 다수의 상을 받는등 화제를 일으켰다.

영채신은 하룻밤 머물기 위해 난약사라는 절을 찾아 간다. 그곳에서 여자요괴 섭소천을 만난 영채신은 소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소천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 소천을 사랑하게 된 영채신은 소천이 귀신인지 알고도 그녀를 환생시켜주기로 마음먹는다. 귀신들과의 싸움을 끝내고 겨우 세상으로 돌아온 영채신은 날이 밝아 소천과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헤어진다. 영채신은 소천의 유골을 묻어주며 그녀의 환생을 빈다.

<아미타경>에서 극락은 여러 가지의 괴로움이 없고 단지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했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 극락왕생을 빌었기에 채신은 미련없이 그녀의 유골을 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스크린에서 천녀유혼의 명배우 장국영씨를 만날 수 없다. 1일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강지연 기자

2003 '세계 물의 해'

지하수 오염

장기적, 점진적으로 오염
수십년 지나도 회복 어려워

지하수의 오염 원인은 다양하다. 가정 하수나 축산 농가에서 배출하는 폐수, 지나친 농약 사용,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비싼 대가를 치렀다. 벤처의 산실로 여겨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 1984년 지역 주민들이 그레이트 오크스 수도회사, IBM 등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하수 오염의 특징은 장기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오염현상이 대부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며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이 어렵다.

사회학자들은 지하수 오염은 오염 원인자 및 오염 정도를 규명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피해보상 및 오염회복 비용부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초등생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 실시

서울 구로청소년수련관은 8일부터 25일까지 초등학생을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꿈을 이루는 생활의 길' 주제의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학습방법 △장래 설계하기 △계획적인 생활 습관 갖기 등 초등학교 학생들이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를 청소년 전문가들과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4·5·6학년, 상담시간은 매주 화·금요일 오후 4시부터다. 참가비는 2만원.(02)838-1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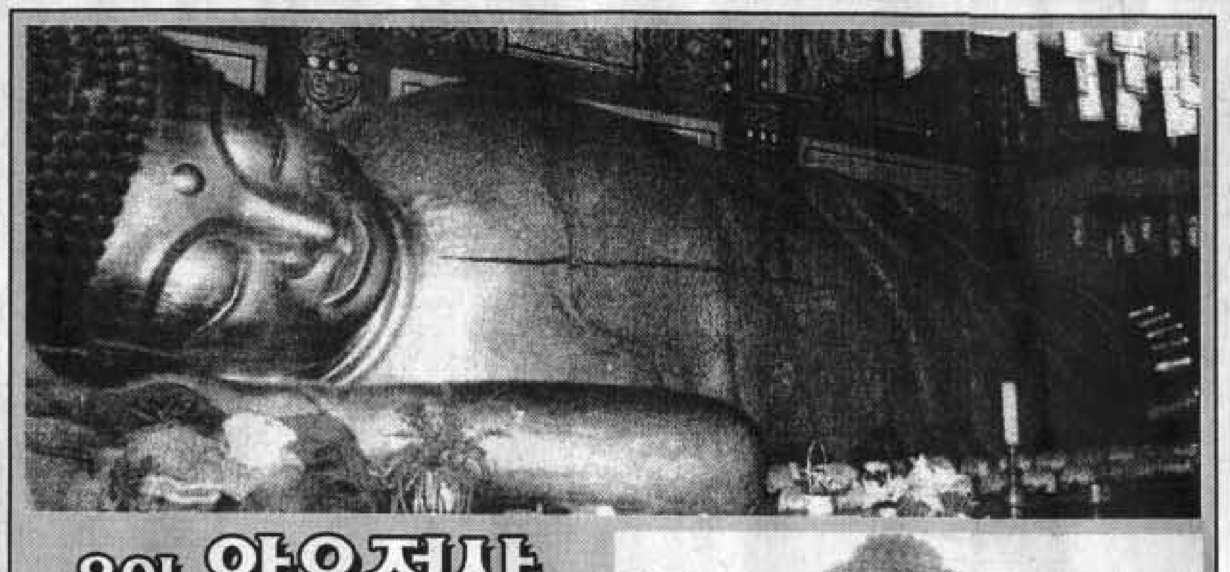
제5회 몰운대 어린이 동요제

부산 몰운대복지관은 '제5회 몰운대 어린이 동요제'를 개최한다. 예선전은 26일 오후 2시, 본선은 5월 3일 오후 2시 30분 복지관에서 열린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거주 초등학생 대상의 이번 동요제는 독창과 중창 부문으로 나눠져 진행되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부상이 수여된다. 19일까지 악보를 지참하고 복지관으로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 (051)264-9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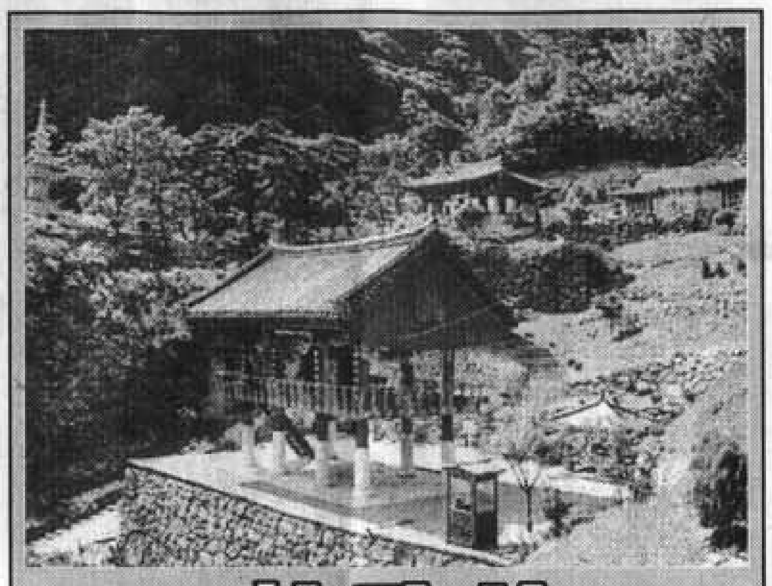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부처님 오신날 명찰 순례여행 [삼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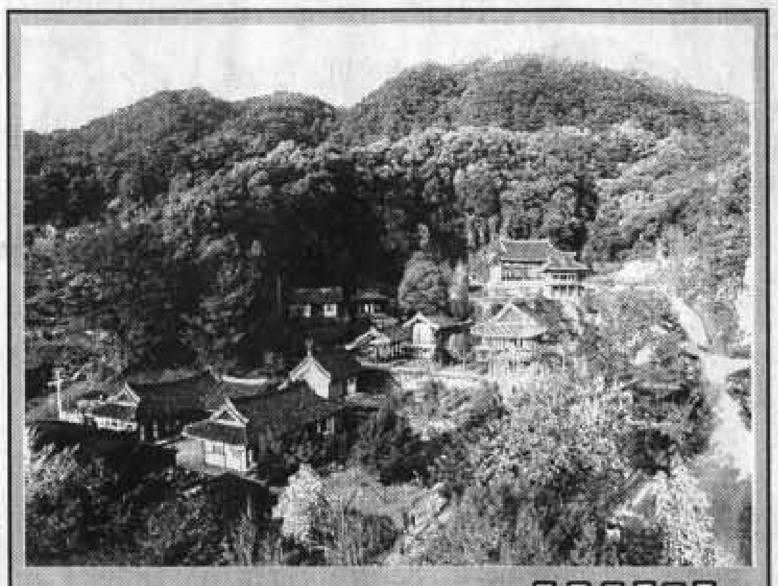
용인 와우정사

와우정사는 대한열반종 총본사로 1975년 창건된 젊은 사찰이다. 잘 꾸민 산책로와 곳곳에 우뚝 솟은 불상, 불탑들은 30년이 안된 일천한 가람 역사를 잊게 만든다. 열반종은 열반에 든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모시고 있다.
그래서 와우정사를 찾는 사람들은 다른 절에서 만나기 힘든 누워있는 석가모니와 마주치게 된다. 주차장에 내리면 절 입구에서 높이 8m에 이르는 석가모니 두상을 볼수 있다. 불신이 완성되면 높이 100m가 넘는다고 한다.



청량사

청량산 도립공원내에 자리한 청량사는 신라 문무왕 3년(663년)에 원효대사가 세운 절로 법당은 지방유형문화재 47호인 청량사 유리보전이 보존되어 있다.
이 청량사는 풍수지리학상 길지 중의 길지로 꼽히는데 육육봉(12봉우리)이 연꽃잎처럼 청량사를 둘러싸고 있고 이 청량사는 연꽃의 수술자리이다. 이 청량사에는 진귀한 보물 2개가 남아있다. 공민왕의 친필로 쓴 현판 '유리보전(琉璃寶殿)'과 지불이다.



극락으로 오르는 행복한 순례 부석사

신라 고승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종찰 부석사는 10대 명찰중 하나이며 우리나라 최고(最高) 목조 건물인 무량수전 하나만으로도 비할 데 없는 가치를 지닌 유적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유홍준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이라고 칭송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국보 5점, 보물 4점, 도유형문화재 2점 등 문화재가 풍부하며, 곳곳에 얽힌 전설만으로도 찾는 이를 사로잡습니다.

■ 날짜 : 2003년 4월 16일 ~ 5월 15일(30일간) 매일출발 [당일코스]
■ 코스 : 서울 - 용인(와우정사) - 봉화 청량산(청량사) - 영주 소백산(부석사) - 소수서원 - 귀가
■ 회비 : 25,000원 (교통비 : 입장료, 3식제공, 봉사료 일체 포함)
■ 장소 : 07:00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앞, 07:30 서울역 대우빌딩앞, 08:00 잠실롯데호텔 너구리상앞

www.dongbaektour.co.kr
친목단체환영 / 주야·휴일 접수함 ※특전 : 동백회원 10% DC
Dong Baek 동백관광여행사
예약문의 : (02)2233-3500